

광주예술의전당 ‘창작 극장’ 대전환

공연 기획·제작·상연 통합 관리
내년부터 절반 이상 자체 제작
전속 오케스트라 창단해 차별화
‘광주만의 공연’으로 관객 유도
창작 역량 확보...자립 기반 마련

광주예술의전당이 단순히 무대를 빌려주는 ‘대관 공연장’의 틀을 벗고, 직접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제작극장’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전제 무대의 절반 이상을 자체 제작으로 채우고, 전당 전속 오케스트라를 새롭게 창단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만의 차별화된 무대가 구현될지 관심이 모인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전당)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부터 제작극장 체제로 전환해 기획·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 중심 극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제작극장 시스템은 공연 기획부터 제작, 연습, 상연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초반 단계부터 스텟프가 긴밀히 협업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작 과정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윤 전당장은 “수도권 주요 공연장이 이미 도입한 선진 모델로, 지역 공연장의 창작 역량을 확보하고 문화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당은 2026년부터 전제 공연의 절반 이상을 자체 기획·제작으로 채울 계획이다. 외부 기획사 위탁이나 수입 공연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창작 인력이 참여하는 작품을 전당이 직접 제작한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광주만의 공연’을 찾는 관객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전환의 또 다른 핵심은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과 별도로 전당 소속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것이다. 기칭 ‘광주예술의전당 관현악단’(전당 관현악단)이다. 합창·소년소녀합창·발레·오페라 등 오케스트라 협업이 필수적인 공연이 많지만, 정기공연 등 광주시향의 바쁜 일정 탓에 안정적인 협연이 어려운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구상이다.

그동안 카메라라 전남,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민간단체와의 협업으로 이를 보완해왔으나, 공연·연습 일정 조율과 꾸준한 소통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전당 측의 설명이다. 이에 전당은 자체 오케스트라를 통해 공연 제작 지원과 완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협연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전당이 시향 외에 자체 오케스트라를 두는 것은 이례적인 시도다.

백홍승 공연지원과장은 “기존 외부단체 섭외에 사용되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전당 관현악단 운영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시립예술단체 공연 제작 시 오케스트라 협업이 원활해지고, 연습 시간 확보와 공연 연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의 지난 공연에 협업한 카메라라전남의 모습.

〈광주시립오페라단 제공〉



광주예술의전당 전경.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전당 관현악단은 오는 11월 오디션을 거쳐 기본 2관 편성의 50여 명 규모 선발될 예정이다. 비상임 단원 형태로 기획공연과 시립예술단 협업 등 연간 20여 차례의 공연에 참여하게 된다. 단기 계약으로 연주자들에게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프리랜서 음악인의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는 것이다. 윤 전당장은 “지역 연주자들이 서울로 가지 않고도 수준 높은 공연에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창단 오케스트라는 광주 예술인과 시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은 제작극장 체제 전환에 맞춰 공연·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제작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리모텔링 중인 별관은 올해 말 대형 연습실과 분장실 등을 새 단장해 개방하며, 향후 전당

관현악단의 주요 연습 공간으로 활용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당 관현악단 창단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향과 역할이 일부 중복되고, 기존에 협업 기회를 얻어왔던 민간단체의 무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전당장은 “일시적인 섭외가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업 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연주자는 더 나은 환경에서 창작에 집중하고, 관객은 완성도 높은 무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향과는 상호 자립과 협력을 통해 광주 예술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작극장 전환은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광주를 ‘기회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몸·언어·철학 모티브 ‘인문학 여행’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8월 강좌, 22일까지 카페 노블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강좌 모습.

〈광주시민인문학 제공〉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의 8월 강좌(제 129기 정기 강좌)가 진행 중이며 서서 눈길을 끈다.

오는 22일까지(오후 2시, 화요일 제외)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펼쳐지는 이번 강좌는 몸, 언어, 철학, 민주, 하루키 등을 모티브로 시민 참여형으로 운영된다.

먼저 월요일(18일)에는 ‘몸·언어·철학’ 시간으로 서명원 교수가 ‘체험주의: 신체화된 마음’을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수요일(20일) ‘민주시민교육’ 시간에는 신우진 책임연구원이 ‘토론기법-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밖

스 세미나’가 진행되는 목요일(21일)에는 위상복 교수가 좌장을 맡아 ‘맑스·엥겔스-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하루키를 이야기하는 하루키월드 시간(22일)에는 신광용 이사장이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를 모티브로 진행한다. 일요일 ‘인문택시’(24일)는 진정한 이사 등이 광주극장에서 번개모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명혜영인문교실도 오후 7시 카페 노블에서 진행중이다. ‘소설독서樂’, ‘들뢰즈 철학’, ‘수요씨네토크’, ‘영화음악실’, ‘미술독서회’ 등의 강좌를 만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박성현 기자 skypark@

K-문학 번역본 해외 판매 ‘한강 효과’

정보라 ‘저주토크’ 등 지난해 120만부...전년비 130% 증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문학을 향한 외국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작품 번역본의 해외 판매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024년 번역원의 번역·출판 지원을 받은 한국문학 도서의 해외 판매량이 약 120만부를 기록해 전년 실적(약 52만부)보다 130%가량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작년 도서 1종당 판매량은 1271부로 번역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5000부 이상 팔린 책이 45종이며, 판매량 1만부를 돌파한 책도 24종에 달했다.

판매량이 급증한 결정적인 계기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이었다. 번역원의 지원을 받아 출간된 한강의 작품은 28개 언어권에 77종이 판매됐다. 특히 작년 한 해 실적만 31만부에 달했다.

대부분의 언어권에서 한강의 출간작들이 재조명돼 판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이전 해외에 출간된 한강의 작품 19종의 판매량을 보면 2023년 약 3만부에서 2024년 약 15만부로 다섯배가량 늘었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에선 노벨상 수상 작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책을 재출간하거나 표지를 새로 단장하는 등 후속 마케팅도 이뤄지고 있다.

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장은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해외 판매 성과가 가시화됐다”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해외 판매 실



한강 작가

적이 한국문학의 세계적 확산 가능성을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강 외에도 정보라의 ‘저주토크’, 박상영의 ‘대도시의 사랑법’, 조남주의 ‘82년생 김지영’ 등의 소설이 3년 연속 4천부 이상 판매돼 꾸준히 성과를 냈다.

튀르키예에서 2023년 출간된 황보름의 소설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는 작년 8만부 이상 판매됐고, 폴란드에서는 김호연 소설 ‘불편한 편의점’이 같은 기간 2만부 이상 팔렸다. 그래픽노블·판타지 등 장르 문학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영도의 판타지 소설 ‘눈물을 마시는 새’는 지난해 독일에서 2만부 이상 팔렸고, 김금숙의 역사만화 ‘홀’ 스페인어 번역본은 최근 3년 연속 1만 부 이상 판매고를 올렸다.

번역원은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독자층이 확대되고, 유수의 해외 출판사들이 한국 문학 출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들 출판사의 유통망과 마케팅 역량이 더해져 한국 문학의 해외 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